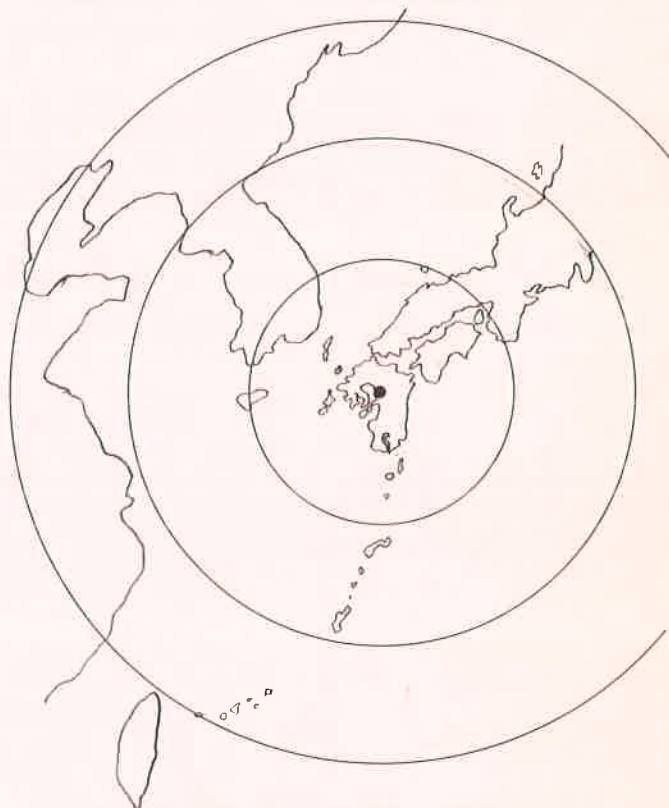


第10回

朝鮮人・中国人 強制連行・強制労働 を考える全国交流集会 in きゅうしゅう



1999年7月31日～8月1日

会場 熊本市国際交流会館

☎096-359-2020

主催

第10回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
強制労働を考える全国交流集会
九州実行委員会

集会日程

第1日 7月31日(土)

- 13:00 受付開始
- 14:00 開会
開会挨拶
全国世話人会代表挨拶、他
- 15:00 分科会 I
- 18:00 分科会 I 終了
- 19:00 第10回記念レセプション

第2日 8月1日(日)

- 9:10 分科会 II
- 10:45 閉会集会
分科会報告
次期開催地挨拶
閉会挨拶、他
- 13:00 フィールドワーク

分科会

- 第1分科会 入門講座
- 第2分科会 「壬辰倭乱」と現代
- 第3分科会 強制連行・強制労働
A会場 全国
B会場 九州・沖縄
- 第4分科会 戦後補償問題の課題と展望
- 第5分科会 調査・保存—近代遺跡調査をめぐって—
- 第6分科会 どう伝え、どう語り継ぐか
—運動・教育実践の交流—

フィールドワーク

- Aコース・・・三井三池コース
荒尾・大牟田市にまたがる三井三池の四山・
万田・宮原坑跡を見学し大牟田駅で解散
- Bコース・・・熊本近辺コース
三菱健軍航空機製作所の地下工場跡や加藤
清正ゆかりの熊本城・本妙寺を見学

参加費

- 一般 3,000円(資料代含む)
- 学生 2,000円(同)

お願いとご案内

※分科会のレポーター募集

各分科会の報告者を募集しています。発表時間は20分程度です。
①題目 ②報告者(団体)名 ③報告希望分科会を5月末までに
事務局にご連絡ください。

※賛同団体・個人募集

この集会に賛同される団体・個人を募集しています。団体賛
同金は1口5,000円、個人賛同金は1口2,000円です。賛同してい
ただいた団体・個人は、当日発行の資料集でそのアピール文を
紹介します。

※宿泊

- ①松屋本館(同封地図参照) 定員100名
一泊二食(レセプション代・税込) 8000円
熊本の山海の幸や名物料理が味わえます。部屋は相部屋とな
ります。駐車場代は別途500円いただきます。
6月末まで、各自、電話・Fax・葉書等でお申し込み下さい。
その際は、「全国交流集会」と言って下さい。
レセプションのみの参加費は3,000円となります。

〒862-0956 熊本市水前寺公園23-1
Tel 096-381-1331(代表) Fax 096-385-3824

- ②会場近くのホテルをご希望の方は、下記宛に連絡してみて下
さい。いずれも会場まで徒歩10分以内です。

メル・パルク 096-355-6311(大甲橋近く)
シングル 6,575円(朝食付)
熊本グリーンホテル 096-325-2222(銀杏通り)
シングル 7,665円(朝食付)
ホテルサンルート熊本 096-322-2211(同封地図参照)
7,800円～(朝食付)

事務局

〒860-8555 熊本市黒髪2-40-1
熊本大学文学部小松研究室気付
Tel & Fax 096-342-2429
e-mail komatsu@gpo.kumamoto-u.ac.jp

よびかけ

敗戦から54年。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日本の戦争責任は、軍隊慰安婦、南京大虐殺など様々な問題を未解決のまま残しています。その中でも、中国人・朝鮮人の強制労働は、全国各地で見聞・記憶され、体験者も多く、日本人にとって最も身近に実感できる問題です。日本全国で、地道な事実掘り起こしがなされてきました。

1990年大韓民国盧泰愚大統領が来日したおり、朝鮮人強制連行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ました。これがひとつのきっかけとなり、同年8月第1回全国交流集会が、体験の交流と学習を目的に名古屋市で開催されました。その後、兵庫、広島、奈良、長野、大阪、岐阜、島根、石川各府県で開催されて来ました。

本年は、初めて九州に上陸し、熊本市で開催されます。九州で本集会が開催されることには、大きな意味があります。

九州は古くから、朝鮮・中国と交流のあった地です。開催地熊本は、秀吉の朝鮮侵略時の武将加藤清正の居城のある地です。佐賀は、その本営名護屋城のある地です。長崎は、広島と共に原爆の落とされた地です。大分は、鯛生鉱山や佐賀関製錬所などに、宮崎は槇峰鉱山などに多くの朝鮮人・中国人が連れて来られ、働かされた地です。鹿児島は、多くの特攻基地のあった地です。沖縄は、唯一地上戦が戦われ、多くの戦死者・犠牲者を出した地です。福岡は、大牟田・筑豊の炭鉱を中心に約35万人の朝鮮人・中国人が強制連行されました。また、戦後は、山口県下関と共に、多くの被強制連行朝鮮人・中国人が帰国出発し、多くの日本人引揚者が帰国上陸した地です。

日本政府は、今また、朝鮮を、極東を、アジアを日本の支配下に置かんとして、新ガイドライン3法案の成立や日の丸・君が代の法制化を図ろうと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拠点にされつつあるのが九州です。

このような地、九州で開催される本集会は、私たちが解明してきた様々な事実をねじ曲げ続けている「自由主義史観」者たちへ多くの歴史的事実を突きつける絶好の機会です。

一方、国際労働機関が被強制連行朝鮮人・中国人・軍隊慰安婦に対する国家補償を行うよう日本政府に勧告しました。日本政府も在日朝鮮人元軍人・軍属への補償を検討すると発表しました。これは、本集会に結集された方々を中心とした地道な調査・研究・運動の成果です。

日本の戦争責任の事実解明と平和と民族友好・和解の架け橋の運動は、いよいよ重さを増しています。世界の諸国民から責任を取る国民と信頼されるようになるために、ひとつでも多くの成果をもって、1人でも多くの方が、熊本市での第10回全国交流集会に参加されること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호소문

일본이 전쟁에 패한지도 어언 54년이 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은 중군위안부(정신대), 남경대학살사건등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생활속에서 중국인·조선인들의 강제연행으로 인한 노동착취 사실이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몸소 체험하신분들도 많이 알려짐으로써 강제 연행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실감을 자아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전역에서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밝혀내려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로 인해 조선인 강제연행문제가 대두되고, 그해 8월에는 체험자를 통한 교류와 그에 따른 학습을 목적으로 나고야시에서 제1회 전국교류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후 호교·히로시마·나라·나가노·오사카·기후·시마네·이시가와등 각 부현에서 지속적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큐슈의 구마모토시에서 집회를 열게 된것입니다. 큐슈에서 본 집회를 연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큐슈는 옛부터 조선·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이곳 구마모토는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침략했을 당시 무신이었던 가동전정이 거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외의 현을 살펴보면, 시가는 본영 나고야 성이 있는 곳이고,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더불어 원자폭탄을 받은 곳입니다. 오이타는 타이오우 광산과 사카노세키 채련소가, 미야자키는 마키미네 광산이 조선인·중국인들을 강제연행한 곳이며, 가고시마는 특공기지가 여러지기 설치했던 곳입니다. 또한, 큐슈의 오키나와에서는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후쿠오카의 오우타·치쿠호우의 탄광등지를 중심으로 조선인·중국인 약 35만명이 강제연행되어와 고생을 한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종전후 후쿠오카는 야마구치의 시모노세키와 함께 강제연행되어 피해를 본 많은 조선인·중국인들이 자국으로 귀국을 했고, 일본인 역시 이곳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조선·극동·크게는 아시아를 자기들 지배하에 넣고 신가이드라인 삼법안을 성립시키고, 일장기·기미가요를 법으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슈를 그 활동무대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위치에 놓여 있는 큐슈에서 본 집회를 연다는 사실은, 한편으로「자유주의 사관」의 뼈들어진 사상을 지닌자들에게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추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방향에서, 국제노동기관이 일본정부에 피강제연행조선인·중국인·중군위안부를 국가차원에서 피해보상 해 줄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의 군인·군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집회에 소속된 분들의 열심한 노력과 조사, 꾸준한 운동의 성과라고 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사실해명과 평화·민족의 우호·화해를 중개역할하는 우리의 이 운동은 마침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는 국민으로서 세계민족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한가지라도 많은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마모토시에서 열리는 제10회 전국교류집회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참여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呼吁

日本战败以来五十四年，亚洲太平洋战争之间的日本的对遗留在亚洲的战争责任，例如从军慰安妇女，南京大屠杀等等问题，都不得解决地遗留下来。其中对中国和朝鲜劳工们的强制劳动，在日本全国各地已是有所闻，有记忆的。其受害者甚多，对日本人来说这应是最容易体会到的问题之一。在日本全国各地也曾进行过踏实的事实追求和调查。

一九九〇年大韩民国卢泰愚大总统访问日本的时候，使战争时强迫牵行朝鲜人的问题更加真实地重现出来。从此，同年八月以交流体验和学习为目的的第一次全国交流集会在名古屋市举行了。此后，又相继地在兵庫，广岛，奈良，長野，大阪，岐阜，島根，石川等各府县举行了。

今年，该全国交流集会第一次汇集于九州，预定在熊本市举行。该集会在九州举行是有着重大的意义的。

九州自古既是于朝鲜和中国有着密切交流的地方。而且集会举办地熊本是丰臣秀吉时代侵略朝鲜的武将加藤清正の居城之地。佐贺是其本营名护屋城之所在地。长崎是跟广岛一样被投下原子弹之地。大分的鯛生矿山和佐贺关冶炼所，宫崎的槇峰矿山等等都是压制拉牵了众多朝鲜人和中国人而强行劳动之地。鹿児島是拥有很多特攻基地之地。沖縄是战火席卷过的唯一之地，也是战死者牺牲者众多之地。福岡以大牟田和筑丰的煤矿为中心强制拉牵了大约 35 万左右的朝鲜人和中国人。同时，与山口县下关一样，日本战败后福岡又是被强行拉牵而来的朝鲜人和中国人的回归出航之地。又是众多日本人的回国登陆之地。

日本政府至今依然企图遥控朝鲜，远东以及亚洲等地，在国内图谋通过「新方针三法案」，图谋军国主义时代以来的国旗国歌仍为今用的法制化。与此同时，将成为其据点的就是九州。

在这样的九州举行该集会，正是向一直歪曲我们阐明过的种种历史事实的「自由主义史观」者们提出更多的历史事实的最好的机会。

另外，国际劳动机构已经劝告日本政府对战前被强行拉牵的朝鲜人・中国人・从军慰安妇女等要给予一定的国家补偿。日本政府也曾发表过有关在日本的朝鲜人旧军人・旧军属的问题需要研讨的声明。这自然是以结集该集会的人士们为中心的人们所进行的踏实地调查，研究，活动的成果。

弄清过去日本的战争责任而推进世界和平，增进民族友谊，实现真的互相了解为目标的我们的桥梁运动，将愈益认为重要的。为了争取使世界各国人民相信我们是一个有责任感的民族，要不断地取得新的成果。我们衷心地期待着能有更多的人来参加在熊本市举行的第十次全国交流集会。